

제28차 학술대회 및 총회 개최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회장 박재용)는 2002년 6월 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28차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공공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기조발표에 이어 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회원 3백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박재용 경북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회장에, 김용익 서울대 교수가 부회장에 선출되었다.

2002년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안내
한국과학문화재단

97년 이후 매년 종합과학축전을 개최하고 있는 한국과학문화재단(이사장 최영환)은 올해 2002 대한민국과학축전을 '과학의 힘,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2002년 8월 10일부터 8월 15일까지 6일간, 포항종합운동장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갖는다. 문의 (02)559-3842, 3844

2002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 참가안내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에서는 여성 기업인이 생산한

우수상품과 여성 발명가들의 발명품을 홍보하여 이를 통한 판로개척과 여성 기업가와 발명가를 꿈꾸는 일반여성들에게 창업의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해 '2002 여성기업 우수상품 및 발명품 박람회'를 개최한다. 참가자격은 여성 기업 및 개인사업체의 여성 대표이거나 여성 발명인 및 특허 소유업체이다. 참가업체 수는 2백업체 내외이며 2002. 8. 2(금)부터 8. 4(일)까지 서울 COEX 본관 3층 대서양관에서 개최된다.

문의 (02)528-0202/ (02)2203-9460

박승덕 과총 부회장(전 육사 교수)
50년만에 찾은 화랑무공 훈장



朴勝德(69,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과총 부회장은 1952년 이미 수여되었으나 정작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던 화랑무공훈장을 6·25 제52주년을 앞두고 최근 육군 본부로부터 전달받았다. 박 부회장은 휘문중 5학년(지

금 고교2년)에 다니던 50년 12월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 소총병으로 여러 전투에 참전하였으며, 52년에는 '철의 삼각지대' 중 하나인 금화지구의 천불산 전투에서 중공군 2명을 생포하는 전공을 올렸다. 52년 7월 4년제 육사에 합격하여 전선을 떠났고, 어린 병사에 수여될 화랑무공 훈장은 육사 생도로 변신한 주인을 찾지 못한채 50년 세월을 흘러 보내야 했다. 그 후 육사 교수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 과학전문가의 길을 걸어온 그는 지난 3월에서야 육군에 '6·25참전 서훈 미수훈자 처리신청'을 했고, 그 결과 '52년 훈장이 수여됐지만 미교부상태'라는 통고를 받게 된 것이다.

오타와대학교와 칼튼대학교 한국동문회 초대회장에 선출

또한 박승덕 과총 부회장은 지난 5월 대덕연구단지에서 열린 오타와(Ottawa)대학교와 칼튼(Carleton)대학교의 한국동문회 창립총회에서 초대회장에 선출되었다.

제8차 세계생태학대회 서울에서 개최 한국생태학회

한국생태학회(회장 길태섭)에서는 지구 온난화와 기상 이변, 생물다양성 감소, 유전자조작 동식물, 환경호르몬, 사막화 등 환경훼손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이 시대에 지구 환경을 보살피는 자연과 인간을 위한 과학, 생태학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매 4년마다 한번씩 세계생태학대회(international Congress of Ecology)를 개최한다. 21세기 들어서 처음 갖는 제8차 대회를 오는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코엑스(COEX) 컨벤션센터에서 약 3천5백명의 전 세계 생태학자들은 물론 환경학자, 공학자, 행정가, 시민운동가 등이 함께 참가하여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생태학'을 주제로 환경오염,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삼림 및 습지 보전, DMZ생태계 등의 다양한 분야를 논의하게 된다. 대회에 모인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참가해서 생태학이 가꾸어나가는 건강한 지구, 쾌적한 환경의 미래상을 실제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세계생태학축전 행사도 함께 기획하고 있다. 또한 아울러 '서울세계생태학대회 전시회'도 함께 개최된다. 이 전시회에는 국내외 약 1백50개 기업 및 NGO 단체가 참여한다. 문의 - 제8회 세계생태학대회 사무국 (02) 6000-8131, 1082, 1086

제 9회 기술경영인 하계 특별세미나 - World Best 실현을 위한 新기술경영전략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강신호)에서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필승의 생존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하계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 세미나는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도록 격변하는 국내외 기업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보의 제공과 함께 새로운 기술·경영환경 이해의 장(場)을 마련코자 'World Best 실현을 위한 新기술경영전략'이라는 주제하에 탁월한 강사와 인생의 지혜를 더해줄 수 있는 명사를 초청, 내실있게 준비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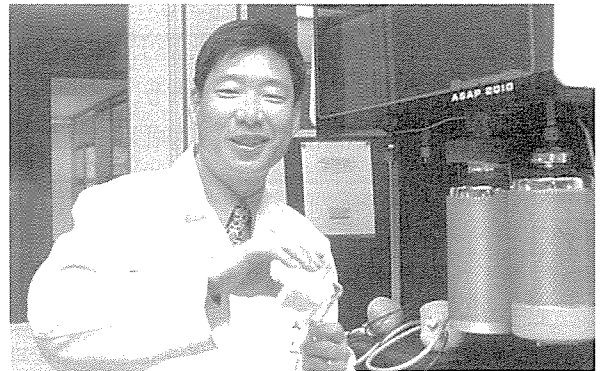
7월 13일(토)부터 16일(화)까지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갖는 이 세미나의 참가신청은 7월 5일(금)까지이다.

문의 - (02) 2185-8832

7월중 주말별자리어행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관장 이승구)은 주말별자리어행을 오는 7월 27일(토)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국립중앙과학관 천체관(대전 EXPO 옆)에서 개최한다. 초등학교 1학년 이상 가족단위로 5백명을 접수중이며 참가비는 어른 1천원, 학생 5백원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전화 접수는 잔여 인원에 한하여 7월 8일부터 받는다. 또한 7월 14일, 28일에는 천체교실도 운영한다. 문의 (042) 601-7911, 7930. www.science.go.kr

6월 과학기술자상 이원호박사 선정 국내 최초로 프로필렌 기상산화 반응용 금속산화물 촉매 상업화 성공



과학기술부(장관 蔡永福)와 한국과학재단(이사장 金定德)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6월 수상자로 LG화학기술연구원 공정기술센터 이원호박사를 선정했다. 이박사는 프로필렌 가스를 공기와의 2단계 반응을 거쳐 화학제품의 원료인 아크릴산을 제조하는 공정기술의 핵심인 성분계 금속산화물 촉매 2종을 실험실적 연구로부터 상업화에 이르기까지 자체 기술로 개발 완성하여 연간 12만톤 생산 규모의 상업화 공장에 성공적으로 적용시켰다. 시상식은 지난 6월 20일(목) 과학기술부에서 있었다. ㉿